

노후 걱정없는 '행복 광주' 만든다

시,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나서...5개년 기본계획 수립 간담회 실행계획 점검, 과제 발굴·제안...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활동 보고

광주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에 나선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후가 걱정없는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게 목표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노인회관 회의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재가입(인증)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시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기존(제1기) 추진실적에 대한 진단과 평가,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활동보고, 제2기(2023-2027년)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추진 사항 공유,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질의·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광주복지연구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 도시인 광주에서 고령친화도와 정책 실행력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고, 고

령화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개선요구 사항 등도 점검했다.

이어 고령친화도시 재가입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1기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와 고령 친화도 진단, 제2기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도 공유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대학교 노인간호학과 김정선 교수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높은 교육수준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광주시는 물론 지역사회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형태의 노인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

시했다.

광주시는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받았으며, '노후가 걱정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 ▲돌봄복지 강화 ▲보건·요양 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등 5개 영역 49개 세부과제에 총 6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광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제2기 기본계획에도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반드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인증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 44개국 1110여 개 도시(국내 38개)가 가입돼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시민 소통 SNS서포터즈 운영

내달부터...주요사업 홍보 활동

광주도시공사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SNS서포터즈를 본격 운영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제1기 GMCC SNS 서포터즈를 공모 선발하고,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SNS 계정을 통해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도시공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취재해 시민에게 유용한 소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포터즈는 특히 ▲공사 주요사업 소개 ▲공공·체육시설 체험 ▲ESG 캠페인 등 내부 행사를 영상·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로 제작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서포터즈 활동은 광주도시공사 공식 SNS에 게시되며, 서포터즈의 개인 SNS에도 공유된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근 사장은 "첫 활동에 들어가는 서포터즈들이 광주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공사의 다양한 소식을 시민에게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다사료음TV 등 5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대중컨벤션센터 MICE인재양성 프로그램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과정

11월 4일부터 5주간 진행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22 광주 MICE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MICE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과정'을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MICE산업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 및 관련 세부내용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홈페이지(www.kdcenter.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설되는 과정은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으로,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5주(주1회 강의)간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컨벤션 산업론과 호텔 관광 실무론, 컨벤션 영어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강의와 실습이다.

"2022 김대중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개설된 이번 MICE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지

역 MICE인재 양성을 위해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또 MICE업계 재직자와 MICE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MICE통역 특강', 'MICE YOUNG리더 양성 캠프'를 차례로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11월 21일 개강하는 'MICE통역 특강'은 통역사 행동지침,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및 실습 등 업계 전문가를 통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또 'MICE YOUNG 리더 양성캠프'는 광주시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비즈니스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대구시 MICE산업 현장자 특강 및 대형전시회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2021년 시작한 'MICE인재양성프로그램'을 실무적 능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마이스 도시 광주'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광산구 미혼모 시설 '편한집' 주거환경 개선사업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광산구 소재 미혼모 생활시설 '편한집'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개선사업은 지난 8월 광주환경공단과 대한사회복지회 편한집이 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협력과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협력 활동이다.

공단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용접기능장, 전기기능장 등 기술인력이 편한집을 방문해 노후된 조명 등기구를 교체하고, 보일러, 난방기구 등 각종 기계시설의 안전점검과 화재 및 누전 위험 등을 살피는 등 재능기부를 통해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및 누전사고에 대한 자율진단과 대처 교육 등도 병행했다.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편한

집'에 있는 엄마와 아이들 모두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편한집의 시설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매뉴얼 개정

건축물관리법 개정내용 반영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리 강화

광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8월4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령을 반영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작업자, 감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건

축물관리법령 및 지침 등을 알기 쉽고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됐다.

또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 계약서는 물론 감리자의 해체계획 검토서 및 감리원 배치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해 해체건축물 현황, 주변 도로,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관리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게 됐다"며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해체하면 벌금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 급식소 123곳 대상

가을학기 식중독 예방 점검

광주시는 "식중독 예방과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16일까지 학교 급식소 123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며,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탈피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할 계획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조리시설과 기구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이며, 식중독 예방 자율점검표 활용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조리식품의 경우 수거해 검사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도시공사 377k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준공

광주도시공사는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주차장에 377kW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광주시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공사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연수원은 부지제공 및 인허가 지원을 각각 추진해 왔다. 교통문화연수원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연간 482MWh 규모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22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